

장르를 넘어 시대, 세대를 관통하는 '예·술·공·감'

빛고을 가을 물결의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다채'

홍콩필 내한 공연·바리톤 김태한 리사이틀부터 한-일 친선음악회, 공연 예술 축제 '그라제'까지

광주예술의전당이 2025년 하반기 GAC 기획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개관 34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시즌은 특별기획공연을 비롯해 클래식·뮤지컬 중심의 '포 시즌(For Season)',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음악 콘서트 '포커스(Focus)', 인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11시 음악산책',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됐다.

하반기 특별기획공연으로 10월18일 개관 34주년을 기념해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with 선우예권'이 열린다. 2019 그라모폰 어워드 '올해의 오케스트라'에 선정된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반 클라이븐 콩쿠르 금메달리스트 선우예권, 지휘자 리오 쿠오르만이 함께하는 무대다.

연말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연 '기억과 위로, 치유의 음악회'(가제)가 12월26·27일 대극장에서 열린다.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무대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포시즌(For Season)은 국내외 클래식과 뮤지컬 분야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은 아티스트들을 초청하는 시리즈다. 9월3일 '한-일 친선음악회'에서는 일본 지휘자 소가 다이스케와 바이올리니스트 오오쿠보 루나, 한국의 성악가 김희정·서미선·이재식·공병우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연주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합창은 광주시립합창단과 일본시민연합합창단, 광주남성합창단이 맡아 존 윌리엄스의 '권들리 리스트' 테마, 한국가곡,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등을 들려준다.

9월25일에는 바리톤 김태한 리사이틀이 마련된다. 2023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이자 오페랄리아 청중상 수상자인 김태한은 피아니스트 한하운과 함께 깊이 있는 오페라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2월12·14일에는 뮤지컬 '레드북'이 무대에 오른다.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시대의 편견을 넘어서려는 한 여성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한국뮤지컬어워드 등에서 4관왕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포커스(Focus)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독창적인 음악 무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악과 팝의 결합으로 '조선팝'이라는 장르를 선보인 서도벤드가 9월12일 광주 무대에 선다. JTBC '풍류대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장'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의 공연이다. 10월24일에는 여성 듀오 옥상달빛이 출연해 '수고했어, 오늘도', '없는 게 메리트' 등 진심 어린 위트가 담긴 곡들로 관객과 호흡한다. 11월8일에는 '촌(村)스탁'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한 중식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11시 음악산책' 하반기 무대도 준비됐다. 8월26일에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발로통의 판화, 9월23일에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코코슈카의 그림을 함께 읽으며 연주를 함께 즐긴다.

10월28일에는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마네의 초상화, 11월25일에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와 몽크의 '키스'를 중심으로 감

성과 사유를 확장하는 음악이 연주된다.

공모사업 선정작 및 공동제작 공연도 다채롭다. 9월11일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 11월15일 최상철현대무용단의 'Chaos II'와 '그들의 논쟁', 12월4·7일 국립극단 공동 제작 년버벌 신체극 '프랑켄슈타인'(가제)이 관객들과 만난다.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며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12월2일 창단한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합창단' 내한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The Echo of Peace' 공연이 펼쳐진다.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와 키즈 디제잉 파티, 바블 매직쇼 등 야외 프로그램이 열리고, 가수 권진아·정인의 야외 콘서트와 이소철의 '오케스트라' 콘서



사진 위쪽부터 세계양궁 정인, 권진아, 바리톤 김태한, 서도벤드, 옥상달빛

트가 축제를 마무리한다. /최명진 기자

아슬아슬 줄타기부터 판굿 무대까지

국악그룹 충진소 초청공연 '연희에 물들다'...내일 남도국악원

'더불어 즐기고 더불어 즐거운 전통 연희 한 마당'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9일 오후 3시 국악그룹 충진소(사진) 초청공연 '연희에 물들다'를 선보인다.

국악그룹 충진소는 전통음악의 계승과 국악의 현대화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전통 예술 단체다.

이날 무대는 전통연희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문굿'부터 '태평소 시나위', 판소리 적벽가 '자통할 쏘는 대목'이 관객들과 만난다.

이어 줄타기 신동으로 불리는 남창동의 '줄타기' 공연이 펼쳐진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난도 줄타기 기술은 물론, 유쾌한 입담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판소리 명창 남해웅의 아들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익숙했으며, 슬랙 라인과 기계제조,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익



혀 전통 줄타기에 집착시켜왔다. 끊임없는 시도와 실험을 통해 전통의 외연을 확장하며 줄타기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무대의 대미는 출연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판굿'으로 장식된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인간과 자연의 틈, 몸짓으로 채우다

현대 문명 속 잊히기 쉬운 자연의 위대함이 무용 언어로 표현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025 우수공연초청기획' 첫 번째 무대로 오는 23일 오후 2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무용단체 문영철발레뎃에마의 창작발레 '표류'를 선보인다.

'표류'는 한 남자가 외딴섬에 홀로 떠밀려 와 자연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2003년 창단된 문영철발레뎃에마는 'Poem(시)'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담아, 시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창작발레를 선보이는 전문단체다. 전·현직 국립발레단 출신 무용수와 발레 전공자로 구성돼 있으며,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창작 작품을 발표해왔다.

특히 문영철발레뎃에마는 국내외 무용계의 주목을 받아온 단체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

문영철발레뎃에마 공연 '표류'...오는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유하고 있다.

2004년에는 '불의 시'로 서울무용제 대상과 남자연기상, 여자연기상,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 '대지의 불'로 최우수작품상, 2006년 '적혼(赤魂)', 2007년 '달의 자유' 등으로 꾸준히 성과를 이어갔다. 2009년에는 '슬픈 초상'으로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을, 2014년에는

'Another Us'로 GDF 무용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안무가 문영철을 중심으로, 허서명·김상진·김태연·장윤서 등 주역 무용수와 김설화를 비롯한 6명의 솔리스트, 고원경 외 17명의 코르도 발레가 참여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